

추석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서 '명절테크' 활기

식약처 5월 '개인거래 허용' 시범사업...홍삼 등 판매 줄이어 유통기한·도안 표시 등 미흡...서미화 의원 "관리·감독 필요"

직장인 박모(40대)씨는 최근 추석에 받은 선물 중 이미 있거나 쓰지 않을 물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놨다. 올리기 무섭게 즉속 팔린 덕에 박씨는 '명절 지출' 비용의 일부를 충당했고, 부족했던 생활비에도 여유가 생겼다.

주부 김모(30대)씨는 요즘 명절이 끝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줄지어 올라오고 있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정가의 절반 가격에 구입하며 쓸쓸한 재미를 보는 중이다. 김씨는 "수요가 늘었기에 미리 사둔 뒤 필요할 때 쓰거나 선물하려 한다"고 밝혔다.

추석 이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도 지난 5월부터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플랫폼마다 관련 물품의 판매글은 물론, 구매 문의도 잇따르면서 '명절테크(명절과 테크의 합성어)' 현상이 뚜렷하다.

다만 '거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플랫폼 곳곳에서 포착돼 완전한 양성화를 위해 시민 의식 제고와 함께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8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 1년 동안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현 당근)과 번개장터 등 2곳이며, 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일반인도 ▲미개봉 ▲제품명 등 표시사항 모두 확인 가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실온·또는 상온 보관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다.

단,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식품의 경우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거래 가능 후 첫 명절이 지나서인지, 최근 당근과 번개장터에는 홍삼과 갈삼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개봉된 상품' 또는 '소비기한 2개월여 남은 제품' 등 거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글도 다수 포착됐다.

이 탓에 시범사업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 및 사업 추진 기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비례) 서

미화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판매 가능 기준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기준 미이행 시 플랫폼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글 작성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이 관계자는 "판매 상품에 대한 안전·위생 문제가 접수될 경우 원인 조사를 거친다"며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성학기자



119에 병원 선정 권한 부여하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119 안전센터 담벼락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의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 부여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애리 기자

'타인 명의 선거운동' 박군택 의원 불구속 송치

광주경찰, 감사관 채용 '외압' 시교육청 팀장도...이정선 교육감은 불송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타인 명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군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전 경선 과정에서 선거주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가 일동' 명의로 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박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33조 상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로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경찰은 박 의원 송치를 끝으로 4·10 총선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

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 시교육청 공무원 A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된 이정선 시교육감 등의 연관성 여부도 살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재영기자

전남경찰,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협박' 고교생들 검거

광주경찰도 관련 범죄 수사 중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학생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받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유포 협박을 하고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A군 등 고등학생 2

명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내려받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피해 당사자 3명에게 연락을 취해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들이 공유받은 성 착취물의 제작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최근 자녀의 얼굴이 사용된 딥페이크 음란물의 삭제 대가로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학부모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들이 받은 문자에는 음란물이 포함됐는데, 경찰은 해당 성 착취물을 발송자들이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다. /안재영기자

"미성년 자녀 성범죄 피해배상 부모가 해야"

법원, '보호·감독 의무' 책임 인정 판결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4일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원고 3명이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일부 승

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치료비와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산정했다.

중학생 A양은 지난해 동급생 남학생 B군과 교제하다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다.

B군은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다른 남학생들에게 "가지고 놀았다"고 소문내기도 했다.

A양의 신고로 B군은 전학 징계를 받았고 미성년제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하 부장판사는 "A양은 B군의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B군의 보호·감독 의무자인 부모는 A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